

A Librarian's View on Reading

圖書館人の 讀書觀

— 讀書週間 紀念講演會 參觀記 —

蘇 時 重

(培材高校 司書教師)

I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뚜렷한 信念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고, 특히 직업인으로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더우기 전문직(Professional)으로서 자기 분야에 어떠한 觀을 가지고 종사한다는 것은 마땅히 갖춰야 할 요소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래야만 使命을 갖게 되고 그 사명을 통해서 그 분야에 발전이 가져와 질수 있겠기 때문이다.

제22회 독서주간 기념강연회가 있다고 통지하여 주는 안내장을 받아취고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로 시간에 맞추어 사랑하는 학생 한 명과 함께 참여 할 수가 있었다. 의당히 보여져야 하고 보여지기를 기대했던 知面있는 도서관인들의 얼굴은 보여지지 않은 채, 다른 청중들과 어울려서 독서강연을 청정할 수가 있게 되었다.

독서주간 행사에 대하여 구태여 그러한 주간을 설정해서 행사를 하고 독서를 강조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반문하며 독서주간 자체에 대한 無用論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독서는 호홉하는 것과 같이 매일 매일 365일 계속해야 할 것인데도 구태여 독서주간을 설정하여 그때 그 주간에만 독서하라는 식으로 떠드느냐(?)고 반문하는 것을 글을 통해서 읽고, 말하는 소리를 들곤 하였다. 事實인즉은 독서주간 무용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독서라는 것은 인간이 호홉하는 것과 같이 365일 계속해야 하고 습관화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한데도 독서주간이 설정된 의도는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독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습관화되어진 독서인에게는 진행하고 있는 독서에 대한 가치성의 귀중함을 재인식케 하고 또 독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서에 대

한 자극을 주게함으로써 책을 멀리 했던 사람들에게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으로 유인하게 하고, 읽기를 게을리 했던 사람들에게 읽기를 부지런히 하도록 하며, 책과 아예 담을 싹 대중(大衆)들에게는 책에 대해 눈을 떠서 책의 소중함을 깨닫고 책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등의 이유와 또 평소에 계속하던 독서를 다시 한번 확실히 재강조하고 서로 알리는 면에서도 독서주간의 설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 되어진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에 대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365일 하루도 쉬지않고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지만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에서 “불조심 강조주간”을 설정해서 평소에 하던 일에 대해서 새롭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강조하는 의미와 비슷하다고 비유 할 수가 있겠다.

도서관인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독서주간과 독서운동은 그 주최의 중심들을 어느기관에서 하느냐? 를 따지기 이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이 대열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누구이어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II

첫번째 연사인 김형호 교수는 그의 연재 「나의 철학적 모색」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을 전했다.

① 인간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은 4발로 거어다니는데 사람만이 2발로 서서 다니는 자세의 의미는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이다.

② 일 중에서도 읽는 일이 중요한데, 알지 못하면서도 자꾸 읽으라는 것이다. 難解한 독서를 하지 않으면 成長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故로 모르는 것에 대한 도전을 하라는 것이다.

③ 문화풍토는 사람을 자극하게 한다. 구라파에서의 도서관이나 대학가의 서점은 知的에의 도전을 하도록 자극 한다.

④ 철학은 삶의 세계를 다시 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 배금주의가 현실 윤리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철학이론은 현실과 만나져야 한다.

⑤ 자기 자신의 끈질긴 창조 세계를 갖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철학이 단지 서양철학의 해설이나 풀이가 되어서는 안되겠으며, 동양철학이 단순한 古典풀이에 불과 해서도 아니 되겠다. 또 논문의 가치가 단지 脚註에 영향을 받는다면 개인의 창의력이 상실되게 된다. 자기 고유의 문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⑥ 知的인 도전으로서의 확인과 자기 중요성의 파악 결단을 속히 내려야 한다.

⑦ 현대 학문에서는 잡지를 무시 할 수 없다.

⑧ 이 땅의 철학이 이 시대에 구체적 이기를 바라는 것은 방법이다. 현실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다.

⑨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인민은 경제관계에 의해서 좌우 된다. 백성은 성실하고, 백성은 씨알이다. 즉 民心은 天心이라는 말들은 농경사회에서의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현대 학문에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어야 한다.

⑩ 현대인에게는 열광적인 미침이 아닌 상태에서의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철학은 모든 행동의 지침서를 아껴줘 줘야 한다.

⑪ 해방후 우리에게서 뚜렷한 이념의 발견을 못했을 때 이제 우리에게서 理念 即 思考의 主體性을 찾아야 한다.

두번째 연사인 김형석교수는 그의 연재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독서를 어떻게 해야되는가의 문제를 論할려고 하는 것은 모래 밭에서 수영 하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기에 수영을 하려면 우선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서를 논하려면 우선 읽는 일 부터 시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① 독서시간의 문제 : 사람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시간이 없다고들 한다. 이상한 것은 읽으면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읽고 있지 않으면서 시간이 없다고들 하는 것이다. 원래 독서라고 하는 것은 책을 보는 사람은 보고, 안보는 사람은 안보는 법이어서 독서시간은 만들어서 읽어야 하는 것이다. 짧은 시간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을 나눠 쓸때 값진 시간이 되고, 그 값진 시간을 독서시간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5분이라도 토막시간을 잘 활용할 때 그 짧은 시간은 독서시간으로 값지게 된다.

② 독서습관 문제 : 독서를 쉽게 하는 방법은 습관을 들이는 일이다. 일어나서 30분이나 자기전 1시간씩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놀라운 독서량에 몰라 될 수 있게 된다. 방향 중에 계획을 세워서 독서를 하게 되고 습관을 드리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겠고 특히 장편을 읽는데 좋은 기회가 된다.

③ 정독 다독의 문제 : 실제로 독서를 하여 보노라면 다독을 해야할지 정독을 해야 할것인지를 알게 된다. 또 다독을 하다보면 정독해야될 부분을 알게 된다. 가능한대로 정독을 하는 것이 좋다. 한번 읽고 못하다는 것은 차라리 안읽는 편이 좋겠다. 오락성있는 것은 별로 않좋고, 신문은 제목만 보는 것으로 되겠고, 문고판(토막 교양)은 어느 의미로 독서가 아니라고할 수 있다.

④ 독서의 의미 문제 : 독서를 하므로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 할 수 있는에서 독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思考하지 않는 민족은 망하게 된다. T.V는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 T.V 방구문이 나오기도 한다. T.V는 운동 중계용으로 적합하다.

⑤ 도서 선정 문제 : 책의 선정기준을 5분의4는 이해가 되고 5분의2는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좋다.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 어려움등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책은 자주 읽어야 한다. 도서선정의 문제는 對人關係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⑥ 도서 선정 방법 : 선정 방법은 각자에 따라서 다르다. 책을 자주 읽으면 그 읽는 책 속에서 읽어야 할 책들이 자주 소개되어 나오는 것이다.

⑦ 독서 속독법 : 속독이 필요하겠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가능한대로 정독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논어 같은 책은 속독을 하기 보다는 정독을 해서 그 의미를 음미하고 음미 할 수록 좋은 것이다.

⑧ 무슨 책들을 읽어야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a. 자기가 존경하는 분의 자서전을 읽는 것이 좋다. (특히 젊은 층에게) 칸디, 슈바이처, Mill의 자서전등을 권한다.

b. 수준급에 올라있는 문학서를 전반적으로 읽는 것이 좋다. 인간은 정서적으로 감동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문학서적이 좋다. 책을 읽다가 울어 본 경험이 있는가? 정신적 감동을 받아 본적이 있는가? 우리는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서 인격적인 순화를 받을 수 있다. 인간에게는 경험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故로 우리는 문학작품을 통해서 간접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글쓰는 데서 표현되어지고 또 영향력이 있는지

기 때문이다. 루소의 “민약론” 같은 것을 읽는 것이 좋겠다.

c. 내 능력에 알맞는 古典을 읽는 것이 좋다. 즉 論語, Sheakespear, 피테, 아우그스트등을 읽으라. 古典은 많이 읽기 때문에 古典이기도 하지만 古典은 Humanism이기도 하다. 너무 덤비지 말고 차근 차근 읽으므로서 Hummanism에 참여한다. 어떠한 Ideology도 Hummanism에는 극복되어 저야 한다.

⑨ 사회문제에 대한 독서를 한다. 사회문제에 관한 독서를 하여 전문을 넓히는 것이 좋다. 막스주의를 망친 것이 공산주의라고 한다.

⑩ 독서의 수준이 올라가면 나의 미래와 가장 접근이 될 만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의 정신생활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전기(傳記)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 좋다.

III

두 분의 강연을 들은 후에 느끼어 저는 點은 생각 밖으로 큰 수확을 얻었다는 것이다. 강연을 들으러 갈 때의 마음은 무엇을 얻겠다는 것보다는 이러한 행사도 도서관인과 관계되는 행사이니까 도서관인의 한사람으로서 그저 참여 해 보자는 사명감(?) 비슷한 상태로

그저 갔었던 것인데, 뜻밖의 得을 얻은 셈이다. 김형효교수에게서 “知的인 도전”이라는 강한 자극을 받게 되었고, 김형석교수에게서 “자꾸 읽어 나아가라는 것과, 노력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들에 마음속깊이 조용한 자극을 얻게 되었다. 솔직한 독백의 하나는 “나 자신이 일찍부터 책을 읽지 못한 점”에 불행함을 느꼈고 지금부터라도 책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한다.

그런데 이상한 젊은 독서주간의 행사에 도서관인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같이 참여하여 이러한 행사에 주체 의식을 갖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었을 텐데도 도서관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고쳐야 할 태도라고 생각되어 진다. 결국 혼자 듣기에는 아까운 값있는 강연이 되었는데 독서운동에 있어서 먼저 도서관인부터 독서하는 생활의 조용한 생활 개혁을 이르고 지적인 도전으로서 실력을 갖추어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도서관인이 되어야 하겠다.

두 분의 강연내용을 잘못 요약(?)했나 하는 염려가 앞서기도 한다. 우리 도서관인은 틈있는데로 이러한 기회에서 배워 알고 전하는 생활을 게을리 말아야 되겠다고 여겨지며 특히 독서면에서 실제로 독서를 실행하면서 권하고 독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各 圖書館 必携의 參考文獻

R. F. BOWKER COMPANY

BOOKS IN PRINT: Author Index: Title Index 1974, 4 vols
SUBJECT GUIDE to Books in Print 1974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5/e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 3/e

MARGIC WHO'S WHO, INC.

Who's Who in America, 38/e
Who's Who in the World, 1/e

DUPRE MANRIU

Courant, M.	Bibliographie Coreenne. 3 vols	\$ 90.00
Howorth, H. H.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4 vols.	\$ 200.00
Kerner, R. J.,	Northeastern Asia, a selected bibliography; contributions to the bibliography of the relations of China, Russi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Manchuria, and eastern Siberia, in Oriental and European languages, 2 vols	\$ 57.50

■ 弊社에서는 上記 出版物의 韓國總販으로 註文을 拜受하고 있아오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株式會社 汎文社
 內務部 登記證 登字 第 40 號 電話 (72) 5131-33